

□ 화남면

*구전리

조선 단종때 세조대왕에게 살해당한 지봉 황보 인 의 후손들이 피난하여 이 산중 골짜기에 정착 하게 되었으니 약 500여년전 부터 정착했었다고 추정된다. 그 후 높은 산의 나무와 흙과 돌로 집을 짓고 땅을 파 우물을 만들며 들의 풀과 나무를 벌목 하여 높은 곳은 밭으로 낮은 곳은 논 을 만들어 농사를 지었으며 소를 먹여 경작 하고 닭을 길렀으며, 서당을 지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학문의 기틀을 만들어 앞서 가는 마을을 형성하였으니, 예부터 별곡 황보씨(別谷 皇甫氏) 라고 인근에서 추앙을 받던 마을이다.

*귀호리

마을 입구에 가로 세로의 큰돌이 밭에 있는데 마치 거북이 모양이라하여 구일(龜逸)이라고 하며 바위를 구암이라 한다. 아래에 오천천(五泉川)이 흐르며 원래 단양 우씨(丹陽 禹氏)가 개척했다고 전한다. 창녕 조씨가 그 후 살면서 구일(龜日)이라고 했다 한다. 우목골(牛牧谷)은 귀에 조극승(龜 厓 曹克承)선생의 귀애정이 있다. 새뭇터는 창녕 조씨 중시조이신 이조참판 임계(林溪) 조경은 (1548-1592)선생을 모신 회계서원(晦溪書院) 동서재 인근에 생긴 마을이다. 평지마(平地)가 있으며, 안귀일은 약 500년 가까이 추계 추씨(秋溪 秋氏)가 개척하여 살아온 마을이다. 다라골(多羅 谷)은 500년전 청주 양씨가 개척한 마을이다. 고부터(古阜基)는 제주 고씨가 처음 집을 지었다고 전한다.

*금호리

금호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 중리(中里)이다. 이 마을은 약 400년전에 안동 권씨와 창녕 조씨가 들 가운데 거주하였기에 중리라 했으며, 복성(復城)한 권응수(權應銖)장군이 의병을 모아 말을 달 리면서 훈련을 시켰다 해서 근처의 삼변(三邊)을 구마강변(驅馬江邊)이라 칭하고 있다. 내지(內旨) 는 앞에 있는 내(川)가 감돌아 마을이 안전하게 보존된다는 뜻에서 생긴 이름인 듯 싶으며, 질구 지는 옛날부터 천연자원인 점토를 이용하여 질그릇을 구워내게 되므로 마을이 형성되었다. 지금 도 도기를 구워내는 옹기굴이 2개 있다.

*대전리

강당(講堂)은 월성 이씨가 정착하여 조선 중엽에 학천서당(鶴川書堂)을 건립하여 지방 아이들을 가르쳤으며, 대리(大里)는 정광성(丁光成)이란 선비가 약 400여년전에 처음 개척하여 생천(生川)이 라 해오다가 정씨(丁氏) 조상이 중국 대전(大川)서 왔기에 대리(大里)라고 했다. 나주 정씨의 世居 地이고, 생천은 한나라 했으며 지금부터 약 400여년전 성송국(成松國)이라는 선비가 처음 정착하 였다. 앞내의 물이 맑고 차가웠기에 생천(生川)이라 칭했다.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리(大 里)의 "大"자와 생천의 "川"을 따서 "大川里"라 칭하게 되었으며 생천(生川)은 창녕 성씨의 世居 地이다.

*사천리

사라골(沙羅谷) 또는 효자문(孝子門)이라고 하며 처음 이 곳에 정착한 분은 약 400여년전 오천 정씨 차순(次淳)이라는 분과 양산 이씨 득정(得禎), 득록(得祿)이라는 형제, 그리고 밀양 박씨가 이 곳에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 한다. 마을 앞에 금빛나는 고운 모래가 많이 있기에 사라골 (沙羅谷)이라고 칭하여 왔으며 정씨 정잠(鄭岑) 형제는 효성이 지극하였기에 효자문이라 한다. 현 재는 양산 이씨가 주를 이루며 살아오고 있는 곳이다. 안노방, 늘노방, 상노방은 백연(白淵)이라

는 선비가 약400여년전에 이 곳을 처음 개척하여 마을을 형성했다. 얼마 후 김치해(金致海)라는 분이 노방(老方)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전한다.

*삼창리

현고(賢臯)는 조선 영조때의 조사언(曹士彦)이라는 학자가 정착한 후 그 자손이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, 고현장터는 조선시대 부터 신령현 동면소재지였으며 사람들의 왕래와 각종 물품들의 거래가 잘 되는 곳이기에 장터가 생겼고 "한마"는 원래 큰 마을이 있었으며 "진동골"은 골짜기의 입구라는 뜻이며, 한천(漢川)은 조선 중종때 김응시(金應時)라는 분이 자양면 노항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처음 살게 되었으며 당시에는 한골(漢谷)이라 했으나 마을 앞에 내(川)가 있기에 한천(漢川)이라 했다.

*신호리

대내실, 다내실은 임진왜란때 김순부(金順富)의 처 현풍 관씨(玄風郭氏)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이곳에 피난와서 마을을 개척했다 한다. "사라들"은 들에 쌀생산이 많으며 또 들이 금빛나는 모래흙으로 되어 있어 예부터 인류가 정착했다한다. 야수골은 야수골(也水谷) 또는 신흥(新興)이라고 하며, 최헌(崔憲)이란 선비가 약 400여년전에 이 곳을 처음 개척했다 한다. 그 후 약 240여년전 이 씨가 이 마을을 다시 이루었기에 신흥이라 칭하게 되었다 한다.

*안천리

능계(陵溪)는 능산(陵山)으로 부터 흐르는 계곡이라는 뜻에서 지명이 생겼고 또 이산에 임금님이 아들의 태(胎)를 묻었다 하여 태봉산(胎峯山)이라고도 부르는데 산꼭대기에 지금도 적석총(積石塚)의 흔적이 보인다. 인류가 본격적으로 정착하여 살기에는 지금부터 약 400-500여년전 이라고 추측된다. "중터" 라는 곳에 가보면 옛날에 사찰이 있었던 흔적을 볼 수 있으며, 기와 조각, 깨어진 고토기와 파편등이 있다. 서원은 조선 선조대왕때 신녕 현감 황준량(黃俊良)이라는 사람이 현대천리 앞 양각연(羊角淵) 위에 백학서원을 건립하여 지방교육에 힘썼으나, 지역이 좁고 물이 없기에 조선 말기에 이 곳으로 이군하여 서원의 이름을 따서 서원마을이라고 불렀다. 신안은 신라 후손이 400여년전에 능계에 거주 했는데 박시양(朴時亮)이라는 선비가 이곳 신안으로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했고 능계 음양지(陰陽地)는 곧 자연이 일광을 받는 형편에 의거해서 생긴듯하다. 온천 또는 신안천은 겨울이 따뜻하고 지형이 좋아서 300-400여년전부터 인류가 정착한 듯 하다. 또 신령땅이 안천이라는 뜻에서 신안천이 생겼다.

*온천리

경주 최씨(慶州 崔氏)의 중시조이신 최씨가 처음 정착했다고들 전해 오고 있으니 약 300여년전 부터 거주한듯 하다. 궁근다리 궁교(弓橋)는 조선시대 신령현의 소재지가 신령에 있었기에 동면 지대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현에 갈려면 이 지역을 지나야 한다. 이 곳에 활처럼 굽은 다리가 있었다 하여 궁근다리 즉 궁교라 했다 한다. 신온천(新溫川) - 지형적으로 온천은 영천군에 속해 있었는데, 이 곳만은 신령현에 속해 있었기에 신령땅의 온천이라는 뜻에서 신온천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.

*용계리

달산(達山), 용계(龍溪), 목리(木里)로 되었다. 만취정(晩翠亭) : 상주목 진주목 진영 개령등의 수령

(首領)을 역임한 만취 강종손 선생의 정자. 목리(木里)는 방가산 중턱에 위치하며 매우 아늑하다. 암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지고 감나무만 무성하다. 통재이는 암석에서 통쇠 즉 구리를 채광했던 곳이며, 현재는 흔적을 볼 수 없다. 파계(巴溪)는 상류계곡에 용이 났다고 하여 지은 이름이다. 이기재는 방가산중턱에 위치한다. 질매재는 논 한 두락의 크기가 너무나 작아서 소의 길마를 놓으면 다 덮어 버린다는 말에서 유래한 지명이다.

*** 월곡리**

논골(論谷), 논실은 월성 박씨가 지금으로 부터 약 300여년전부터 정착해 살고 있었으며, 그 위에 큰 못이 있고 이 못에 몽리(蒙利)를 담당하는 3개 부락이 있다. 못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골짜기라는 뜻에서 논곡이라 했다 한다. 월령은 약 300여년전에 월성 이씨가 임진왜란 후 정착하였다고 전해오고 있으며, 점촌(店村)은 1950년대까지 점토를 이용하여 옹기를 구웠으며 현재 농가 5세대가 살고 있다.

*** 죽곡리**

죽곡(竹谷), 월천(月川), 하죽곡(下竹谷)으로 되었으며 죽곡은 약170여년전 나씨성을 가진 선비가 이 곳을 개척했다 한다. 예부터 대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하며 지금도 땅을 파면 썩은 대나무가 나온다고 한다. 건너골은 약 200년전에 정주선이라는 선비가 처음 개척했다 하며 골짜기라 내를 건너야되는 위치이다. 절골은 약 200년전에 성명미상의 스님이 절을 짓고 불법을 전파하면서 마을이 생기고 사람이 살았다. 그 후 절은 소실되고 마을도 없어지고 이름만 절골로 남아 있다. 윗대내실은 조선조 성종시 黃仲信이라는 선비가 이곳으로 피난와 살았다. 지금도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.